

가야산 숲길 지키기 위해 수덕사 스님들 '백제 미소의 길' 포행하다

백제의 미소 그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비가 오는 외중에 진행된 걷기대회(위)와 가야산지킴이시민연대에서 마련한 수박을 먹는 스님들.

웅산 스님, 최승우 예산군수, 설정 스님, 지하 스님(앞줄 왼쪽부터) 등이 걷기대회에 앞서 가야산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린 6월 20일,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덕숭총림 수덕사 스님들은 잠시 용맹정진을 멈추고 '백제 미소의 길 걷기' 행사에 동참했다. 충청남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야산순환도로 건설을 막고 청정 자연과 성보문화재의 보고인 가야산 숲길을 지키기 위해서다. 3회째를 맞은 '백제 미소의 길 걷기'는 가야사 터에서 서산마애삼존불 인근과 보원사 터까지 9km에 이르는 가야산 등반길을 고요히 명상하며 걷는 포행으로 진행됐다. 삼국시대에는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내포(內浦)지역으로 고대문물이 유입됐던 가야산 일대. 1000명의 스님을 수용했던 보원사를 비롯해 서산마애삼존불, 태안마애삼존불 등 수많은 유적과 100여 폐사지(廢寺址) 등 백제불교의 옛 영광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길을 200여 스님은 흠뻑이 걸었다. 구도 정진의 연장선인 우중행선(行禪)에는 밤꽃 향기가 가득했다. 이날 걷기 대회에 앞선 오전 9시 가야사 터에서 열린 조촐한 행사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과 선택 지하 스님(前 종회위원장), 수덕사 주지 웅산 스님 등 산중 스님들과 최승우 예산 군수 등 불자들이 동참했다. 출발에 앞서 설정 스님은 "환경파괴와 자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가야산을 지키는 것은 이곳 우리들의 의무이자 커다

란 행복"이라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맑은 공기를 전해 주자"고 말했다. 웅산 스님도 "오늘 이 행사는 이 길을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사색의 길, 건강의 길, 명상의 길로 하자는 것이다. 충남도청은 포장도로를 추진하지 말고 마사토 등을 이용해 시민들이 이용할

의를 입고 오르는 산은 스님들에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스님들은 "밤꽃향 참 좋다"며 자연을 만끽했다. 가야산지킴이시민연대는 이런 스님들을 위해 시원한 수박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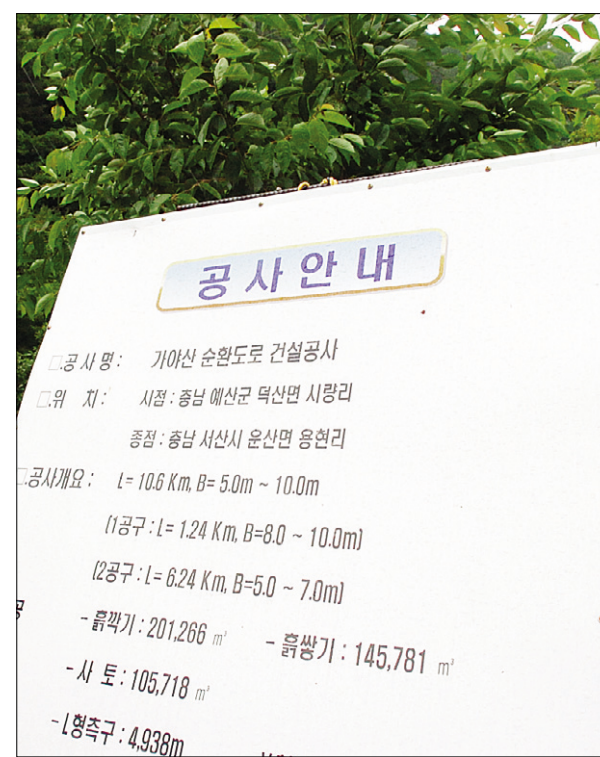
덕숭총림 선원이 있는 정혜사에서 온 한 수좌 스님은 "정부 각 기관은 개발계획이 거의 확정된 이후에야 일반에 공개한다. 가야산 순환도로를 비롯해 많은 개발사업에 이권 단체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의 단맛은 단 시간에 머물지만, 환경 및 문화재 파괴의 영향은 후세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3시간 가량 산길을 걸어 일행은 보원사 터에 이르렀다. 발걸 작업이 진행 중인 보원사 터 입구에서 당간지주는 늘씬한 자태로 옛 위용을 알렸다. 보원사 터를 참배하며 스님들은 환경 수호의 의지를 다시 다졌다. 내년에는 스님과 시민들이 맨발로 가야산의 자연과 하나되어 걷는 행선의 장관이 펼쳐질 수 있을까.

글=노덕현 기자 dhavaia@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to@hanmail.net

가야사 터에서 서산마애삼존불·보원사 터까지 행선 순환도로 건설보다 생태·사색·명상길로 남겨주기를...

수 있는 생태 길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승우 예산군수는 "내포 가야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황토길을 만들어 맨발로도 걸을 수 있도록 해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순환도로 건설을 준비하는 부원건설 차량이 지나다 서둘러야 할. 오솔길이었던 산길은 차량 바퀴자국이 남아있는 비포장길로 변해있었다. 스님들은 가운뎃길 들꽃과 풀을 밟지 않기 위해 양쪽으로 나뉘어 걸었다.



백제미소길에 표시돼 있는 가야산 순환도로 공사 안내판.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대축제"

산상차

야생수제 구중구포 뽕잎차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카페 등 검색하십시오.

"첫서리 맛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첫서리 맛은 뽕잎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장 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맛은 뽕잎을 채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중구포의 전통제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는 실로 바랄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 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맛은 뽕잎은 신선 열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맛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명숙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공강선원 뽕잎, 뽕잎 채취,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 고혈압에 도움
2. 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 최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땅하게 할 정도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맛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부산 중구 안미선
- 대구 북구 석현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경북 안동 김정일
- 경기도 용인 박영철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 브랜드 수상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맛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선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호수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연재 /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중구포 뽕잎차) 50,000원 → 35,000원 (2통이상 주문시)

발심(첫서리맛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시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1)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